서빙·방역·배송… 이통사 '로봇시장'서 새 먹거리 찾는다

SKT 보안로봇 분야 시장 활약
KT AI 로봇 등 제품 확대나서
LGU+ 서빙로봇 사업 본격화

'서빙로봇, 방역로봇, 실내 및 실외배송 로봇….'

이동통신사들은 잇따라 로봇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포화 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라인업도 다양하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AI 로봇 키트'를 출시하는 등 보안 분야의 로봇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KT는 AI 로봇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서빙로봇 사업을 본격화했다.

KT 'AI 로봇 플라자' 체험매장에서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다. /KT

4일 국제로봇연맹보고서(IFR)에 따르면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362억 달러(약 47조 7369억원)에서 2026년 1033억 달러(약 136조 2217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오는 2025년에 인공지능(AI) 사업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로봇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KT는 로봇 사업을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 사업으로 정의하고, KT만의 강점인 '딜리버리 체계'와 '로봇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로봇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서비스로봇 보급확산에 나서고 있다.

로봇 딜리버리 체계는 고객의 수요에 맞게 로봇과 솔루션을 상품화하고 로봇 도입부터 현장 컨설팅, 사후관리까지 고객을 지원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또 로봇 플랫폼은 AI 통합관제, 서비스 지능화, 핵심기술 확장성이 특징이다. AI 통합관제는 수 천대 로봇에서 초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 6000만 건 데이터를 분석해 설치부터 운영까지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KT는 AI 로봇 제품 라인업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서빙 로봇, 방역 로봇, 실내 배송 로봇 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 로봇 공도주행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다양한 주거·오피스 공간들을 이어주는 실외 배송 로봇 서비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 공장과 물류센터 내부의 소형 물류 이동을 책임지는 공장용 소형 물류 로봇, 농업 현장의 일손을 거들어주는 농업용 배송 로봇까지 도메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거대 AI인 '믿음'과 결합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AI 로봇 서비스'로 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화재, 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는 'AI 로봇키트'를 내놓는 등 보안·감시 등 영역에서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SKT는 지난 3월 뉴빌리티 등과 공동으로 자율주행 AI 순찰로봇 사업화를 개시했으며 3월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순찰로봇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SKT 관계자는 "SKT는 AI 기술력에서 다른 통신사와 큰 차이가 난다. AI 컴퍼니를 지향하는 우리 회사는 언어와 비전, 데이터 등 다양한 AI 기술을 개발해 실제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닷과 같이 음성으로 사람과 소통하는 기술부터,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실내에서 로봇 시각 정보를 통해 위치를 측정해준다. SKT는 이 같이 다양한 AI 기술을 로봇에 접목해 단순히 무한 반복하던 로봇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더 똑똑한 일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AI 로봇에서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게 만드는 연결성(Connectivity)을 핵심 BM(비즈니스모델)으로 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손잡고 서비스 로봇사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스마트팩토리, 대기환경관리, 약제배송 등 산업현장에서 로봇서비스의 성장가능성을 확인한 LG유플러스는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서빙로봇 '클로이'를 출시한데 이어 지난 7월 중국서빙로봇인 '푸두봇'을 판매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서빙로봇 '푸두봇'에 LG유플러스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DX) 솔루션을 결합해 공급하게 된다.

중국 로봇을 정식 공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 서빙로봇을 도입해 국내 판매할 수 있지만 통신사업자라는 이유로 중국 로봇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LG유플러스에서 중국로봇을 국내 공급하는 것이 대표 통신사업자로서의 도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로봇 라인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매장과 산업현장 전체에 음영지역 없이 LTE/5G 통신 기반 심리스(Seamless)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내 대표 로봇전문기업 유진로봇과 물류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빙'에 이어 '물류'로 로봇사업 분야 확대에 나섰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MS '워드패드' 28년만에 역사 속으로

MS워드·윈도 메모장 권장
워드패드 효용성 낮아져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Windows) 운영체제에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 '워드패드'가 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MS는 4일 공지를 통해 앞으로 'doc·rtf' 등 서식이 있는 텍스트 문서엔 MS 워드를, 'txt'와 같은 같은 일반 텍스트 문서엔 윈도 메모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모습. /뉴시스

워드패드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 외신들은 해당 기능의 효용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드패드는 서식이 있는 텍스트 문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MS 워드나 다른 워드 프로세서에 비해 기능이 부족하고 호환성이 떨어졌다. 또한 PDF 포맷이 문서 공유의 대세가 되면서 워드패드의 필요성이 줄었다.

MS는 워드패드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하루 전에 메모장에 자동 저장과 탭 자동 복원 등의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워드패드는 1995년 출시한 운영체제 윈도95부터 제공됐다. MS는 2018년 메모장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윈도11에 들어 다중 탭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온 반면 워드패드는 2013년 출시된 윈도8에서 약간의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워드패드가 제거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MS워드와 메모장을 주로 사용해 워드패드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SDS, 클라우드 시장 공략 가속

레드햇, IBM과 맞손

삼성SDS가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 레드햇, IBM과 손을 잡았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삼성SDS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에서 레드햇의 오픈시프트(OpenShift)를 제공한다.

또 삼성SDS는 IBM, 레드햇과 공동 영업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IBM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픈시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서비스를 구성한다.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배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플랫폼이다.

좌측부터 한국레드햇 김경상 사장, 삼성SDS 구형준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부사장), IBM 루스 선(Ruth Sun) 삼성 파트너십 글로벌 매니징 디렉터. /삼성SDS

이번 협력으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오픈시프트를 통해 기업 업무시스템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금융, 공공분야 고객 맞춤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스마일게이트

영상 소통 서비스 '피플' 인증샷 출시

스마일게이트는 차세대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피플(P.Pool)'이 인증샷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4일 밝혔다.

피플은 지난 7월 27일 오픈베타 이후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이번 인증샷 기능 업데이트로 최대 25명까지 하나의 프레임에서 인증샷을 남길 수 있으며, 모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U+유모바일, 가족·친구와 무제한 음성통화

'지정번호 통화 자유' 서비스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브랜드 'U+유모바일'이 지정 회선에 한해 국내 음성 통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부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된 부가서비스의 이름은 '지정번호 통화 자유'로 LG U+망을 사용하는 모바일 무선 번호 1~3개 회선을 지정하여 무제한 국내 음성 통화가 가능하다. 1개 회선을 지정할 경우 이용요금은 월 1300원, 2개 회선은 월 1900원, 3개 회선은 월 2500원이다.

U+유모바일의 '지정번호 통화 자유' 상품은 고객들의 통신 사용 패턴에 따라 알뜰폰을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보통 음성 통화 무제한 요금제는 음성 통화량이 제한된 요금제보다 비싸다. 하지만 평소 음성 통화량이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고객이라면 음성 통화량이 제한된 요금제를 선택한 후 지정번호 통화 자유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채윤정 기자

LS, 동해공장 교량 '덕봉교' 명명

첫 해저 케이블 준공 업적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LS전선 동해사업장을 지키게 됐다.

LS는 강원도 LS전선 동해사업장 신축 교량을 '덕봉교'로 이름지었다고 4일 밝혔다. '덕봉'(德峰)은 구자열 의장의 호로, '덕'은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봉'은 최고를 의미한다고 LS는 설명했다.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며 은혜를 베푸는 것과 최고라는 의미를 가졌다.

구 의장은 LS전선 회장을 지냈던 2009년에 국내 최초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을 준공하며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했던 공적을 기리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다.

/김재웅 기자 juk@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